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520-2

Tel : 042) 220-9003

Fax : 042) 252-6807

E-mail : kmw @ djsungmo. com

### 설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는 1997년 8월 산재형으로 시작하여 2001년 12월 27일 간호부내 호스피스과가 신설되면서 10 bed 의 호스피스 병동이 개설되었습니다.

### 목적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념실천에 따라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완화시켜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인간다운 삶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으며 가족들을 지지하고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 팀 접근

의사, 간호사, 성직자, 수도자, 사회사업가, 영양사, 약사,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등을 구성원으로 월1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봉사자 모임과 활동

자원봉사자들은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로 20명이 주1회 4시간이상 자기가 맡은 말기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서 읽기와 말씀나누기로 시작하며 환자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협의와 체험을 나누고 매월1회 자원봉사자를 위한 미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팀장이 있어 회합 때 함께 하며 활동사항은 대화와 기도, 머리감기기, 침상정리, 대체요법, 가정호스피스, 사별간호, 장례 돕기, 환자보호자가 설 수 있도록 환자 돌봐주기 등 기본적인 간호부터 시작하여 환자의 편리와 내외적 통증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교육

호스피스회원을 위한 정규교육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며 대전 교구가 주최하는 교육과 원내교육으로는 년1회 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완화의학 학술대회 등 관련된 교육에 참가하

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위해 봉사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과 질적 향상을 위한 피정과 성지순례 및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호스피스 운영 및 후원

개별적인 후원으로 의료비보조 및 호스피스에 필요한 물품제공, 사별가족방문보조, 음식 및 장례 비등 다양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별가족모임

사별가족을 주로 돌보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편지 보내기, 전화방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별가족을 위한 기도와 월1회 미사를 봉헌하고 년1회 가족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지속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일상적인 생활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간호사의 기도

늘 우리의 곁에 친근함으로 계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는 온통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미소한 저희이지만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한줌의 위로와 희망을 나누어 줄 때마다  
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확신해 기뻐합니다.

주여 비오니,  
저희들의 부드러운 미소 한 모금이  
환자들의 그늘진 마음에 햇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만지는 저희들의 손끝마다  
당신 함께 하시어 큰 은총의 선물을 내려 주소서.

또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좌절과 고독 속에 있는 환자들에게  
주님으로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더욱 의미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당신 복음의 전도자로 써 주소서.

인내롭고 정성스런 우리의 행위를 통해  
치유자는 하느님이심에 희망을 걸게 하소서.  
늘 이웃의 요구에 따라 살으셨던 주님!  
저희의 육체적 피곤함과 정신적 긴장까지도  
고통속에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당신께 봉헌하는 기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 서울대학병원 호스피스실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Tel : 760-3066

E-mail : loveronica@hanmail.net

**【저희】** 서울대학병원은 호스피스라는 활동에 앞서 등불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등불의 역사를 보면 1991년 5월 중앙 내과 허대석 교수님께서 진료를 보던 중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진료 중에 설명을 하기에는 여러 제한점이 있음을 파악하시고 그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하였다. 그레 환자와 가족이 말기 진행암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진행·말기암을 가진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등불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 정규적인 간호사가 없었으나 1995년부터는 간호사도 함께 정규적으로 참여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과 가족을 간호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였다.

또한 병에 진행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영적 문제에 대한 특히 종교적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장병호 목사님이 참관을 하고 계시며 2001년부터 천주교 원목실의 수녀님도 함께 참석하고 있다.

등불 상담은 일종의 그룹 상담의 형식으로 이끌어지고 있으며, 먼저 환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을 표현한다. 그러면 각 part에서 지적되어지는 문제들을 설명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호스피스 care가 자연스럽게 설명되



어지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서울대학병원은 치료의 개념이 강한 병원으로 인지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이 치료에 대한 방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듣게되면 무척 당황을 하게 된다. 그레 분노와 실망을 가지고 불확실한 대체방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게 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환자와 가족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등불을 11년 동안 이끌어 주신 분은 중앙내과의 허대석 선생님과 사회사업실의 이영숙 선생님이시다. 상담의 진행 과정은 다소의 변화 과정을 가졌으나 등불의 정신은 처음과 같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현재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병원 본관 11201 호실 교육 상담실에서 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든 것이 상담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중 목사님께서 병원의 교회에서 봉사자 5명이

구성된 호스피스 일반 자원봉사자 팀을 1998년 12월에 만들었다. 명칭을 살롬 호스피스라는 이름으로 환자 의뢰는 허대석 선생님께서 담당하셨다. 서울대학 병원은 종교를 기반으로 한 병원이 아니므로 이들은 교회에서 독립하여 현재 교육 상담실에서 봉사자들의 모임과 호스피스실의 사무실이 전체 암환자를 위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1996년 1월 병원 규정에 호스피스실 신설이 결정되었으나, 유명무실하던 중 완전 독립된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다. 2001년 2월 21일 호스피스실 개소식을 병원장님, 병원내 부서장님, 간호대학의 학장님과 교수님, 호스피스에 관련되신 분 그리고 외부 호스피스 기관의 분들을 모시고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호스피스실이 위치적으로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곳을 보호자가 아닌 환자 분들이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됨을 표현할 시에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함을 감출 수가 없다.

서울대학 병원 호스피스실은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봉사자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움직이고 있다. 2001년부터 의과대학 2학년들의 elective course로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받고 있으며, 병원 내에서나 의과 대학에서의 호스피스 정신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매주 수요일에 환자에 대한 모임을 의사 허대석 선생님, 사회복지사 이영숙,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김미라 그리고 자원 봉사자님들이 참석하여 환자의 문제와 해결 방안의 회의를 가진다. 현재 호스피스실은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김미라 간호사 1명과 자원 봉사자분들이 주5일 하루 4시간 봉사를 하고 있다.

자원 봉사자 팀이 형성된 후 자체적으로 활동하던 살롬팀이 서울대학교병원 호스피스실 일반 자원봉사자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활동에 앞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고 봉사를 시작하며 봉사가 끝난 후 활동에 대한 나눔과 기록을 한 후 그 날 봉사를 종결한다.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은 월1회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은 조장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서울대학병원 호스피스실에서는 현재 자원 봉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봉사자들은 각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면담을 통하여 서울대학병원 호스피스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호스피스실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 물론 종교적 특색이 없는 것이 저희 호스피스실의 특색이다. 그러나 봉사자와 환자 개인의 종교는 인정하고 있다. 혹시 환자가 종교적 의뢰를 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 병원에 있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목실과 연결을 하여 그들의 종교적 의식을 받도록 한다.

사랑을 기초로 한 저희 호스피스실은 현재 병실 방문은 물론이고 가정 방문도 추진하여 가정에서 환자의 어려운 점을 의논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타 의료기관으로 연계된 후 그 병원에 호스피스팀의 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저희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그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드리고 있다.

아직은 많은 면에서 초기의 단계에 있지만 환자와 가족의 평안을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그에 따른 결실을 볼 것이며, 이러한 저희들에게 많은 곳에서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